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 정 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 창 율	Editor	Donald C. 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65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월 7일 금요일	Issue No.	1765
		Date	Oct. 17, 1969: Fri.

대통령 3선 위한 개헌안 국민투표 박정희 대통령 대승리 예측

(서울 10월 17일 밤, 에이피) 한국의 대통령 3선을 위한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는 17일에 실시되고 있는데, 한국전국을 통한 방송은 박정희 대통령의 대승리를 예언하고 있다.

이 방송은 일주이들어온 투표결과에서 2대 1로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허락하는 헌법개정안이 승리할 것이라고 있다는 것에 기준하여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총 투표수의 5.5%가 들어온 결과로는, 개헌안 찬성이 383,187표며, 반대표가 193,230표고, 무효표가 16,326표였다. 이 개표결과를 대단히 의의 있는 것이다. 의냐하면 이 개표는 서울과 부산의 개표결과를 총리부처 야당이 가장 센 이곳에서 여당이 우세한 것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뜻밖의 남시하에 8,471개의 투표소로부터 아무 큰 사고도 없이 하루의 투표일은 원만하게 지내졌다. 내부투표에 의하면 투표마음의 한시간 전에 선거등록자 총수의 68.8%에 해당하는 10,355,162명이 투표하였다고 한다.

공보부장관 신범시씨가 무사투표에 관해서 일반국민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였는데, 이 반면에 반대 야당대변인 송원영씨는 만은 불법투표에 대해서 말하고 공박하였다.

52세의 박대통령은 자기 관저 근처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였는데, 부인을 동반한 박대통령은 군중이 박수로 그를 환영하였을 때 웃음으로 답변하였다. 동대통령은 투표결과에 예언을 하기를 거부하고, "나는 투표가 '뚝날대'까지 아무 말도 하질 않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한 1962년의 헌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1971년 말에 '뚝날대' 박대통령의 2기 후에 박대통령의 3선을 허락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개정안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만일 이 국민투표가 부결된다면, 자기는 곧 대통령직을 사직한다고 성명하였다. 여당인 민주공화당에서는 선거자의 70%가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대통령의 대변인은 60%가 승인한다면 대승리라고 말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적들은 이 개정안을 공정한 투표로 퇴각시킬 수 있다고 휘악하였는데, 정부가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경찰의 보고에 의하면, 선거전이 '뚝날대'에 선거법 위반으로 233명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투표소가 열린 후에 폭행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으며, 국민투표는 전국을 통해서 큰 흥분도 일으키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제 1 면)



인후레이숀 억제에 각계의 협력을 소망, 닉슨대통령이 연설

(와싱튼 10월17일발,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17일, 국내경제문제에대해서 전미 레이디오방송을 하고, "물가, 임금의 억제에대해서 금주말 경제.노동계지도층에 서한을 보내고, 협력을 구한다. 미국은 물가의 극상승이라는 병으로부터 회복하고있는데, 경제의 파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만성의 고통을 피할수없을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대통령의 발언의 주요점은 다음과같다.

1. 경제.노동계지도층에대한 서안에서는, 생활비의 상승이라는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있는 국가로서, 노동과 판매의 기초에따라서 각자가 장래의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한다.
2. 정부의 인후레이숀 대책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고 생각한다.
3. 실업률의 증가는 피할수없다고보는자도 있는데, 나는 그에 불감성이다. 파열능력의 과정에서는 우리는 실업방지를위해 모든 수단을 써야한다.

북비에트남의 화평회담에서 미국과 비에트남의 2차 회담을 제안

(파리 10월16일발, 에이피) 16일 약6시간행하여진 제38회 파리회담 화평회담본회의후, 남비에트남 임시혁명정부 (해방전선) 대변인은 "북비에트남은 미국과 임시혁명정부가 비공식의 2차 회담을 하도록 제안하였는데, 랫지 미수석대표가 이를 거부, 따라서 파리회담참가의 4차대표가 직시 비공식교섭에 들어갈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혁명정부대표는, 혁명정부만이 남비에트남 인민을 대표하고있는이상, 이를 거부하였다" 라고 발표하였다.

랫지미수석대표는, "북비에트남의 제안은 돌연한것이였다. 공산측은 미국이 남비에트남에있어서 유일의 합법정부로 인정하고있는 사이공 정부대표와의 회담을 거부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미국무성측은 "4차 회담을 2차 회담에 분리시킬 의도없다" 라고 말하고있다.

철퇴계획 공포를 북비에트남대표 요구

(파리 17일발, 에이피) 16일의 파리회담 화평 회담에서 본 스안.도이 북비에트남 수석대표는 전주 라자스 미국부장관이한 "닉슨대통령은 철퇴계획의 복안을 가지고있다" 라고한 발언에 언급하고, "만일 닉슨정권이 이미 완전철퇴의 복안을 가지고있다면, 외 미국민의 요구에 대답하여 공표하지 않는가, 15일의 반전쟁.일에 참가한 미국민들은, 비에트남전쟁의 지시종결에 힘을 쓰지안코있는 것을 잘 알고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대해서 랫지 미수석대표는 "다음에 행동할 사람은 당신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북비에트남 원조 신계획에 소련 조인

(모스크바 15일발, 에이피) 라스동진은 "환.반.돈 북비에트남수상과 코스이긴.소련수상은 15일 모스크바에서 소련의 새로운 북비에트남원조계획에 조인하였다" 라고 보도하였다.

이신원조계획에서는 소련은 북비에트남에대해서 "상당한 량의 무기, 탄약, 단 군사장비, 식량, 석유, 금속, 의류, 의약품, 기타의 들것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있다. 총액은 공표되지안코있는데 와싱튼측에서는 연간 10억불이라고 추측하고있다.

북폭직시 재개 등 전투확대를 요청 공화당 하원의원 15명

(와싱튼 10월15일발, 에이피) 반전.일 행사가 열중하든 15일에 스테이저 공화당연방하원의원 (애리조나주)은 "전쟁종결을위해 급격, 대규모적인 전투확대를 하여야한다" 라고 닉슨대통령에 요청하였다. 이요청에는 모든 공화당전국위원장을위시하여 단 14명의 공화당하원의원이 서명하고있다. 요청은 "미국이 세계각국간에서 다시 머리를 위에 높이 들려면, 이 3등극상대의 드러 쓴 적은 전쟁에 명예있는 결말을 지어야하며, 또 이겨야한다" 라고 말하고, 북폭의 직시재개, 남비에트남군을 유격태로서 북비에트남에 칩두시기등을 주장하고있다.

남비에트남의 초계정이 다남 영해내의 소련선에 발포

(사이공 10월17일발, 에이피) 공산측에의하면 16일 남비에트남해군초계정은 다남남방에서 연안 12마일의 영해내를 항행중 소련 트롤 어선을 발견, 증명을 요구하였는데, 소련선이 이에 응하지 않거기때문에 위협발포를하였다. 동측에의하면, 소련선은 그레도 정지하지안했기때문에, 남비에트남측은 본격발포를하고, 소련선에 명중, 동선은 전방부에서 연기를내며 도주하였다. 트롤어선에 위장한 소련의 스파이선은 통상 비에트남 연안의 제7기함대의 부근에 출몰하고있다.

중공의 억류외국인 43명

(홍콩 10월17일발, 공동) 1년7개월간에걸쳐서, 중공에 억류되고, 11일 들연석방된 영국인문인 노맨.바리맨시는 13일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1. 중공에서는 42명내지 그이상의 외국인이 억류 또는 행방불명이되어있다. 그중 일본인은 14명, 영국인은 11명, 서독 미국인 각 8명, 이태리, 베르기인 각1명이 포함되어있다.

1. 나의 경우, 석방은 전혀 예상되지안했다. 여러가지 조사를 받은후, 나는 1년7개월간 추옥 되었다. 이간 나는 말한마디도 하기안코, 어느 날 들연히 자유해방될것의 통고를 받았다. 중공에서 억류되어 아직 판결을 받지안코있는 단 외국인에게도 이런일이 있을수있다.

소련 우주선 소유즈 7호 귀환

(모스크바 17일발, 에이피) 모스크바방송에의하면, 우주선 소유즈 7호는 17일 오후영시 26분, 소련 가자흐공화국 가라간다 북서96마일의 소정의 지역에 라하산으로 착륙하였다. 등지점은 16일 6호가 착륙한 지점으로부터 단지 15마일의 거리에있다. 8호는 18일 귀환한 예정이다. 역래까지의 발표에의하면, 이번의 3우주선의 비행에서 새로 개척된 분야는, 6호에서 행하여진 금속의 자동용접실험 뿐이다.

선발징병국장 허시 증장 해임 대통령 고문으로 진출

(와싱튼 10월11일발, 에이피) 28년간에걸쳐서, 선발징병국장을 지낸 "징병인" 토이스.허시 중장이 매년 2월16일부터 해임된다고 백악관이 발표되었다. 허시중장은 새로 인적자원등원 문제에대해서 대통령고문으로 임명된다. 선발징병국장으로서 제2차대전, 한국전쟁, 비에트남 전쟁의 3 전쟁에 동중장이 조직한 인원은 천4백50만이상, 현재 76세로 거의 눈이 보이지안는데, 항상 "일이할수없도록 몸이 나빠지안기때문에 취직할 의사없다" 라고 말하고있다.



(제3면으로부터 계속)

닉슨대통령은 동중장을 대장으로 지명할것을 명백히하고, 미국인은 중장의 일의 "성과"를 감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지구리대통령 보도판에의하면, 후임자는 민간인이라고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표된다.

추천선발 방식 징병안을 하원군사위가결

(의심은 10월16일밤, 에이피) 하원군사위원회는 대통령제안의 19세 우선.추천선정방식에의한 징병계획을 오늘 전일일치로 가결, 하원본회의에 송부하였다.

비에트남 전쟁의 해결은 무조건 즉시철폐

크리브랜드 하와이대학총장담

(오노루쿠 10월15일밤) 전국적인 비에트남 정전 일의 일환으로서 하와이대학을 중심으로 15일의 오아후에잇서서의 반전 활동은 일부에서 우려되고있든 분쟁도업고, 명은한가운데 닳았다.

오전 10시반으로부터 시작된 마노아학원내의 시위운동은 오후, 강연, 영화상영, 반전출품의 전시회, 자유의론등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이에 중시참가한 학생의 수는 칠명내외였다.

이날의 행사에서 가장 강하게 시위단의 공감을 끈것은 미군의 비에트남으로부터의 무조건철폐를 제창한 크리브랜드 하와이대학총장, 길 주부지사 양씨의 연설이었다. 크리브랜드총장의 연설은 총장 취임 이래 미국의 외교정책에대해서는 처음의 발언이었는데, 외교관으로서 4년간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부 대사의 요직에잇든 사람의 발언이기때문에 동바사의 비에트남철폐의 제안은 깊은 인상을 주었다.

국내통일위해 속히 철병하라

비에트남전쟁은 전에 볼란서가 알제리아에서 싸운 식민지탈취를위한 전쟁과 마찬가지로의것이다. 알제리아전쟁에서 볼란서국민이 두개에 나누어진것같이, 비에트남전쟁은 미국국민사이에 큰 간격을 만들었다. 미국국내의 사회적인종적긴장은 지금 폭발점에 도달하고있다. 미국은 국내통일을 위해서도, 볼란서가 알제리아에서 손을 댄것과 마찬가지로 비에트남으로부터 완전히 철퇴하여야 한다. 문제는 간단하다. 아메리카는 지금이야말로, 자의적유장함이 아니고, 헌신적 민속으로서 비에트남으로부터 손을 댈여야할 절대적긴급사태에 직면하고있다는것이다.

비에트남전쟁은 단순히 미국국민사이에 깊은 간격을 만들고있을 뿐만아니라, 미국국민과 단 제 국민사이에도 간격을 만들었다. 이 간격은 전쟁이 계속되는한 깊어만가는것이다. 미국내의 제 문제도 심각화될뿐이다. 미국은 남비에트남이 미국의 무력의 지지업시, 독립되어갈수있도록 하는것이 무력개입의 기본목적이라고 내외에 성명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이기본목표의 달성에도 완전히 실패하고있다. 비에트남전쟁은 미국의 역사중에서 전예없는 가장 수단의 악용을 모출한 것이다. 우리는 비에트남에서 무엇을 보호하여왔는지 판명치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비에트남에잇서서의 우리의 행위는, 미국국민을 더러트리고있다. 미국국민은 지금 국민전체로서도, 여태까지 개개인이 생각해온것같이 "국가로서의 미국의 체면은, 결코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버릴 만큼 중대할것이 아니다" 라는 간단한 진리를 인식하여야한다.

이사 소식

동지 회중앙부 서기겸 재무 김창수씨는 그만 세인트.루렌스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신데, 그만 만은 차도틀보아, 근일내에 퇴원하실것이라고한다.

와이아와의 최선 주씨께서도 세인트.루렌스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신데, 오는 월요일 20일에는 퇴원국가하신다고한다.

